



퀴투라미그룹, 김제시에 장학금 3000만원 기탁

퀴투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지난 23일 김제시 관내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달라며 장학금 3,000만원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송경석(퀴투라미홀딩스 대표이사)은 "퀴투라미 장학금을 후원받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학업에 매진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김제시도 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퀴투라미 그룹은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퀴투라미문화재단과 퀴투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지난 1985년부터 중단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학술연구 지원 사업, 교육기관 발전기금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퀴투라미보일러 점검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7년에 걸쳐 총 480억원 규모의 다양한 나눔 경영을 실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간부공무원 청렴 자정 결의대회

남원시 간부공직자들은 지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간부공무원 60여명은 청렴 자정결의문에 서명하고, 시를 대표하는 간부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청렴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결의문에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 금지 △책임 회피·업무전가 금지 △이관개입, 권한남용, 알선·청탁금지 △공갈, 향음, 선물 수수금지 등의 내용과 위반할 경우 처벌과 불이익 감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뢰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해줄 것"을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이어져

정읍시에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초산동에 소재한 원마트 김현영 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2010년 초산동에 원마트를 개업한 이후 지속적인 기부와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10월 중순 원마트 상동점을 추가 오픈 예정이다.

김현영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관심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날 수성동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수 세무사는 2005년부터 매년 장학재단 세무 확인 수수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으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경마축산고 김도경, 장제사 합격

제11회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 3급... 고교생 합격은 두번째

제11회 장제사 자격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생이 탄생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김도경 학생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제11회 말산업국가자격 시험(장제사 3급)에 최연소로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한국경마축산고에 따르면 김도경 학생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한 제11회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에서 장제사 3급에 도전해 최연소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장제사는 말의 편자를 만들거나 말굽에 편자를 장착하는 일을 하는 전문 기술인으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고등학교 신분으로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편자를 만들고 붙이는 일은 쉽지 않다. 무거운 편자 제작 장비와 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합격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돼왔다.

우리나라에서 장제사 자격을 지닌 사람은 현재 9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고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이 합격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어 김도경 학생의 이번 합격은 의미가 각별하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입학생부터 말산



상을 떨치고 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한국 최초 여성 장제사를 배출한 국내 유일 말산업 마이스터고등학교이며 오는 10월 17~10월 20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이다. /김재훈 기자

업 분야 정규교육 과정, 방과후 교육 과정, 전공동아리 활동, 산업체현장 실습 및 말산업 선진국 국제협력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장제사 합격뿐만 아니라 말 조련사 및 재활승마 분야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에도 15명이 실기시험에 합격하는 등 명실공히 말산업 분야 명문고등학교로 위

전춘성 진안군수, 한우협회 진안군지부와 간담회

전춘성 진안군수는 한우협회 진안군지부(협회장 신재명)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사료값 상승과 노후화된 축사 시설 등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우 협회는 올해 한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과 사료비, 자재비 등의 폭등으로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진안군 조사료 수확시기 지연 등 수급 불안정, 축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마련, 한우협회 결의 대회 및 행사비용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군은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우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우협회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발빠른 추진 의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



여 한우산업이 진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재명 진안군한우협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행정과 적극소통 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군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2차 교육 실시

순창군이 지난 23일 건강장사사업소 대강당에서 실무담당하는 공무원인 9급~6급 주무관 250여 명을 대상으로 민선 8기 군정방향에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지난 8월 31일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과 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이어 2차로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8기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웃음힐링 노민 강사를 초청하여 '나를 행복하게 하는 웃음'이란 주제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웃음을 통해 행복에너지를 전달하는 힐링교육이 이어졌다.

최영일 군수는 강연에서 민선8기 군정비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과 5대 목표, 이를 위한 △군민 모두가 열린 소통행정 △전국제일의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축 △효율적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 슬립화 △지방자치 시대의 성공을 이끌 자주재민 확대 △비효율적 공공건축물 건전화 추진 등 5대 정책방향에 대한 평소 생각과 소신을 직원들에게 피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의료기관 소방 합동점검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22일 혈액부서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병·의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월 이천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혈액부서 중환자 등 5명이 사망, 의료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시한 것으로, 보건소·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피난·방화시설 및 층별·용도별 방화구획 유지·관리 실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실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피난계획 수립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소방시설 차단·폐쇄행위 △환자·의료진의 피난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여부 확인 등이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병원의 경우 거동불편 환자가 많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자봉센터, 11년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진안군자봉봉사센터는 지난 23일 11개읍면 만7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모신 가운데 제11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사)진안군자봉봉사센터와 진안동부새마을금고, 마이신탁사, 진안생물사와 2012년도에 진안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에게 생신 선물을 전달하고 문화공연으로 장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2012년 9월부터 후원사업으로 시작한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총11회 1100명의 어르신에게 고품격 사회에 어르신을 공경하고 코로나9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생신을 누리시도록 하고 있다.

이번 후원에 참여한 사할 금융기관 관계자는 "작은 정성에도 행복해 하는 어르신 모습에 자원봉사자 모두 감동을 주고받는 기회에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며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11년째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 진안동부새마을금고, 마이신탁사, 진안생물사에 감사드리며, 군도 어르신이 행복한 진안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익산 남성중 배구, 전국대회 3관왕 쾌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남성중학교 배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전국 최강임을 증명했다.

지난 23일 남성중에 따르면 최근 충북 단양에서 열린 제33회 CIS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배구부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올해 남성중은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남성중은 정항누리배 우승 제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 등 전국대회 3관왕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지난 5월 열린 전국남녀중·고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렇게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강수영 감독과 김민재 코치 지도 아래 선수들이 땀과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이다.

한편 강수영 감독은 청소년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돼 지난 8월 바레인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배구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3회 그림사진 공모전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선희)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2022 제3회 권리 그림·사진공모전 공모 그린(green) 우리집 선정아동들 작품을 26~30일 전주시청 1층 로비 및 노숙광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꿈에 그린(green) 우리집'이란 주제로 아동의 독립공간, 아이들의 원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집의 모습을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그림 또는 사진을 접수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총 40점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시장상,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상 등을 선정하여 총 300만원의 상품이 지급된다.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들의 권리를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시 지역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돕고자 한다.

/김재훈 기자